빚 상환 다가오고 수사는 답보 '고통의 나날'

고교 교사 채용 사기 4개월…피해자들 힘든 생활

애 아빠 모르게 1억 빌려서 줬는데 어찌 갚을지…
배우자와 별거·우울증 치료에 생계 걱정 한숨만

"사기 당한 걸 진작 알았지만 자식 앞날이 걱정돼 신고를 망설이다가 사기꾼 교사가 돈을 들고 외국으로 나가게 된 걸 알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애 아빠도 모르게 1억 넘게 빌렸는데 그 큰 돈을 어찌 다 갚을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기간제 교사들을 꾀어 수억원을 가로채 외국으로 도피한 사건〈**광주일보 2월 20일자 6면**〉 관련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규직 교사 채용 댓가 명목으로 당시 광주 남구 D고교 교사 김모(40)씨에게 금품을 건넨 기간제 교사와 부모 등 그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된 것만 모두 7명. 계약직 신분인 기간제 교사와 그 부모들은 적게는 1700만원부터 많게는 1억2000만원까지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 "자녀의 중국 유학을 알선해주겠다"는 김씨의 말에 속아 500만원을 건넨 학부모도 있었다. 남자 기간제 교사 A(30)씨는 자신의 진로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경찰 신고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등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00만원 정도만 수고비 명목으로 내가 받고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지 않으면 즉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김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은밀한 거래'를 거부하지 못했다. 김씨가 받은 돈은 기간제 교사 부모들이 마련한 것으로 피해자들 상당수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당장 몇개월 뒤부터 많게는 월 300만원에 이르는 원금과 이자를 3년 이상 은행에 갚아야할 상황이다. 은행 빚과 함께 신용카드 카드론 서비스까지 받은 일부 피해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 부모 일부는 상대 배우자 모르게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가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별거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과 학교 측은 파악하고 있다.

광주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기 사건이 ▲부당한 처우 ▲학생들의 시선 ▲불안한 고용 조건 등으로 힘든 교직 생활을 이어 가던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직 교사 채용을 댓가로 금품을 요구해온 김씨의 유혹은 뿌리 치기 힘든 '악마의 유혹'이라고 보고 있다.

피해 교사의 부모들은 "교육계 등 각종 인맥을 과시하면서 '돈을 건네기만 하면 자녀의 신분이 바뀐다'는 말을 하는 (당시) 정규 교사 김씨의 말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었겠느냐"면서도"사기를 당한 것은 한참 전에 알았지만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신고를 미루다가 해당 교사가 외국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알았다"며 울상 짓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남부경찰은 "인터폴에 김씨 검거에 관한 협조 요청을 내린 상태"라면서 "피해자들 사연은 안타깝지만 정기적으로 수사 상황을 안내해드리는 것 말고는 사실 경찰로서도 어찌해볼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해경, '도박판 선장' 수사 착수

연안여객선 고박 부실·과적 등 긴급 점검…농협도 후속조치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에 전남 지역 연안 여객선 안전 점검 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 〈**광주일보 6월 16일자 1면**〉과 관련, 해양경찰이 운항 중인 연안 여객선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선원들이 운항 중 도박을 하거나 부실한 화물 고박 등으로 문제가 됐던 여객선의 경우 선사인 농협 측이 선원 근무 기강 확립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1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 등은 전남 연안 여객선 출항 전 화물 고박 상태 및 과적 여부, 화물배치 상태, 승선자 확인실태 등 안전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해경이 선박 운항 전부터 직접 현장에 상주하며 관련법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해경은 또 신안 비금도와 목포 북항을 오가는 '비금농협 카페리호' 선원실에서 도박판을 벌인 선장 등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해경은 해당 선원 및 여객선 선사 측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부실한 선박 안전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금농협 카페리호를 운영하는 농협 측도 긴급 운항 점검에 들어갔다.

농협 측은 당장, 선박 운항중 벌어졌던 선원실 내 도박 행위와 운항 중 적재된 화물 고박 제거 행위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향후 모든 선박 운항 시 해양경찰·해운 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확인을 거쳐 해당 선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화물 고박 불량·승선자 확인 실태 등 드러난 모든 문제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불우이웃 돕기 감자 나눔행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감자 나눔행사가 16일 북구 운암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가운데 새마을 부녀회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감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음주운전 124분 뒤 측정…혈중 알코올 0.056% 나왔다면

"법 기준치 초과 근거없다" 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1시간 34분(음주운전은 2시간 4분)이 지나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6%가 나왔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을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기준치(0.05%) 이상으로 판단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계속 상승해 30~90분에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한다"면서 "사고 당시는 운전을 한 뒤 30분이 지났을 때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0.060%)를 역추산한 시점도 운전 뒤 60분이 지나 운전 당시 음주운전 수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4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에서 해남읍 해창교사거리 교차로까지 30㎞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허재호 회장 벌금 납부 순조…74억원 남아

세차례 걸쳐 149억원 납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최근 벌금 60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허 전회장의 미납 벌금 납부가 약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부인 황모씨가 대주주로 있는 HH개발 소유 뉴질랜드 땅을 팔아 생긴 자금으로 최근 미납 벌금 60억원을 납부했다. 이로써 부과된 벌금 총 254억여원 중 향후 허 전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은 74억500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허 전 회장은 황씨에게 대여 형식으로 60억원을 마련,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가운데 교도소 노역으로 30억원을 탕감받았고 이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149억5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은 앞서,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49억5000만원, 40억원을 각각 납부했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따라 남은 벌금도 순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또 황씨가 대주주로 있는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한 뒤 남아있는 벌금을 완전히 납부 할 계획이다.

해당 골프장은 부채 등을 빼더라도 1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낮 화투판 적발 4명 "도란도란 인생 얘기 했을 뿐" 궁색한 변명

쌍나팔

○…대낮부터 가정집에 모여 앉아 화투판을 벌이던 50~60대 남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줄줄이 경찰서행.

○…1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6)씨 등 중장년 남녀 4명은 전날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정모(여·48)씨의 집 거실에 둘러 앉아 판돈 19만원을 내걸고 속칭 '고스톱' 판을 벌였다는 것.

○…화툿장을 돌리던 김씨 등은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 "경찰이야"라며 소리친 뒤 판을 뒤엎는 등 증거를 감춘 뒤 "도란 도란 앉아서 인생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베갯잇 속에서 판돈을 발견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2분)
4층(용봉지구 미래A옆코너)
르까프 매장 뒷, 군산아구찜 앞
룸21개(1층상가 2칸, 4층 고급주택1개 옥탑)
(엘리베이터완비, 정남향, 등기완료)
월수익 880만(1년 수익 1억500만 발생)
매가12억(보2억 융3억 실투자 6억)

신축원룸매매4층(전대정문1분,전대후문1분)
룸12개(1층 점포,4층고급주택,옥탑)
월수500만(1년6000만 수익발생)
매가 6억5천(보4천 융1억2천)

▶신축원룸 매매 4층(전대정문1분) 등기완료
룸18개 (4층 주택) 매가12억(보5천 융2억6 월800)
▶원룸매매 4층(전대정문1분코너) 등기완료,임대완료
룸18개(1층 상가2칸) 매가8억(보4천 융1억 월700)
▶용봉동 원룸 룸11개 매가4억(보2천 융8천 월400)
▶나주 이창동 원룸(택지지구 내)
룸18개 매가3억4(보3천 융1억2 월550)

상가매매(수익성)
북구 우산동 7층 상가건물매매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목욕탕)
토지96평 건물 565평
월수800만(주인직접경영시 1000만발생)
매가10억5(보2억 융4억5)
▶수완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3층)
85평(신한은행 두시,모아엘가A 상가앞)
매가3억5천(보3천 융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수완지구 상가 매매 3층(엠스타빌딩)
62평(롯데마트 옆 서 하남공단 쪽)
매가 2억5천(보2천 월 120 융9)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
62평(부영APT앞)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융9)
▶나주시 삼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토지205평 건135평)
▶북구 산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오피스텔매매(수익성)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
(운천역 1번 출구 2분 올수리함)
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융1천)
12평 매가3천5백(보200 월30 융1천)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연)
(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앞)
30평 매가 1억8천
할인가 → 1억5천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
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교환하실 분(교환전문)
상호교환 하실 분
(5천~50억)
APT, 상가, 토지, 근생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신축원룸임대
(용봉지구 미래APT 옆)
버스정거장 3분에 있음
신축 4층, 룸 21개
엘리베이터 완비, 정남향
풀옵션 무료
32인치TV,세,냉,에
인터넷, 유선, 붙박이
신발장, 수도 무료제공
첫입주자에게
사은선물증정
원룸 보200 월30만
투룸 보300 월40만
건축인테리어전문(신안)
건축 설계부터
시공,분양,임대
리모델링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미래도빌 062)512-8080

상가임대
(수완지구, 북구)
▶수완지구 3층 25평 임대
(한솔빌딩)
(신한은행 뒷, 모아A 상가앞)
보1천50만(시비없음)
▶수완지구 3층 62평(엠스타)
(롯데마트 옆, 하남공단 4번 쪽)
보2천 월120(분할가능)
▶수완지구 1층 18평
(한도빌딩)
(대방 5차 APT후문앞)
보2천 월120만(시비없음)
▶북구 우산동 1층 80평
(구호전사거리 무등장례식장)
보3천 월150만
(식당,까페,당구장,호프적합)
▶나주 삼영동 학원1층(70평)
2층(60평)-상담후결정
062)521-1060

(주)대신경매
■ 이제 경매로 시작해서 부자되세요
■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컨설팅 해 드립니다
■ 건축설계, 건축시공, 리모델링(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상가/근린주택 ▶ 수익성 물건
· 동구 산수동 근린시설(대 275㎡ 건246㎡) 감정4억6, 최저 3억2, 투자적합
· 광산구 신창동 근린시설(대2000㎡ 건909㎡) 감정18억5, 최정10억4, 대로변 6차선
· 동구 소태동 근린상가(대100㎡ 건272㎡) 감정2억2, 최저1억, 주거상가
·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대330㎡ 건1283㎡) 감정11억8, 최저5억3, 투자적합
· 서구 양동 근린시설(대809㎡ 건1108㎡) 감정17억, 최저9억5천,
· 북구 각화동 근린시설(대1123㎡ 건605㎡) 감정8억6, 최저4억8천, 각화시장부근
· 동구 충장로 근린시설(대713㎡ 건500㎡) 감정가11억, 최저4억9천7, 충장로5가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대1094㎡ 건4489㎡) 감저가41억, 최저28억8, 금호월드옆

주 유 소
· 광산서봉동 주유소(대1821㎡ 285㎡) 감정가11억4, 최저8억2천, 영광도로
· 영암군 삼호읍 주유소(대918㎡ 건1292㎡) 감정가 26억4 최저18억4

APT/주택
· 광산구 신창동 APT(대지62㎡ 건125㎡) 감정가2억5, 최저1억7천, 주거문화
· 남구 봉선동 APT(대지32.58㎡ 건59.4㎡) 감정가 8천8백, 최저3천9백2 주거문화
· 북구 중흥동 주택(대지254㎡ 건235㎡) 감정가 2억, 최저1억5천, 전남대 부근
· 상무지구 정연오피스텔 임대 3층 30㎡ (보증금 2천, 월120만) 매매가능
내부 인테리어 시설 무료제공

대지/토지
· 동구 계림동 대지(대지511㎡) 감정가6억9, 최저4억9천, 광주고 바로 앞
· 동구 충장로 대지(대지298㎡) 감정가5억, 최저2억2천, 충장로 유동인구 많음
· 광산구 소촌동 대지(대지1956㎡) 감정가20억, 최저20억, 광송간도로 송정역
· 광산구 송정동 대지(대지72.9㎡) 감정가1억2천8, 최저9천, 코너토지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임대 6층 48평(보증금 1천, 월80만) 매매가능

오피스텔 및 특수물건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골든오피스텔
(대428㎡, 건1907㎡)
감정 3억5천 최저 1억6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대205㎡, 건75㎡)
감정 1억 최저 4천5백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대32.8㎡, 건119.3㎡)
감정 1억4천3 최저 6천4
· 북구 신안제일오피스텔
(대5.81㎡, 건21.7㎡)
감정 3천9백 최저2천7백9십
· 서구 치평 수림 오피스텔
(대7.6㎡, 건44.1㎡)
감정 6천1백 최저4천9백

건축시공 설계부터, 임대
매매 리모델링까지
책임지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경매 함께 가족처럼
같이 공동하실 분
상가,대지,근린시설
주택,APT,전문취급함

010-6832-9700 / 062)512-8080